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상하이 생보설계사, 질적 성장 중

□ 중국 상하이 지역의 생명보험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의 인원은 감소한 반면, 개인별 수당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발표된 상하이보험감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4분기(6~9월) 기준 상하이 생명보험 보험대리인 수는 총 41,817명에 달해 작년말 대비 415명이 감소함.
-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신규 보험대리인 수는 대부분 소폭 증가했으나 대형회사들의 경우 평안생명만 15,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생명, 타이핑양생명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보험대리인의 총 수입은 13.99억 위안으로 작년의 약 82% 수준에 그쳤으나, 1인당 평균 수입(1인당 평균 3.35만 위안)은 작년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업계의 구조조정과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영전략 경향, 보험대리인에 대해 보다 엄격해진 내부관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계가 금융위기 이후 양적 성장전략 보다는 질적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보험대리인들이 수당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적부심사를 강화해 부실계약을 걸러내기 시작하면서 보험대리인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당하락으로 이어져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보험대리인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신보험법 시행(올해 10월 1일) 이전부터 보험대리인에 대한 내부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자체적으로 부실조직을 걸러내고 보험대리인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경향도 보험대리인의 고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해방일보, 11/18)